

보도시점 2026. 4. 26.(일) 12:00 / 배포 2026. 4. 24.(금)
< 4. 27.(월) 조간 >

설탕 담합을 적발해낸 직원들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 받는다.

-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개최, 총 14명 3,200만원 포상-

※ 주말 엠바고 주의 : 4월 26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조직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 중심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6년 4월 22일(수)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공정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1회 공정위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자 선정을 위해 5~9급 저연차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그리고 국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4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총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과제명	포상금	공적자
3개 설탕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적발	총 1,500만원	정문홍 사무관 등 2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총 650만원	민지현 사무관 등 4명
20년간 숨겨온 DB, 영원, HDC 계열사 누락행위 엄중 대응	총 600만원	음잔디 과장 등 5명
국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거래 점검팀 운영	총 450만원	장주연 과장 등 3명

□ 베테랑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설탕 3사 담합 적발 (총 1,500만원)

‘3개 설탕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에게 1,000만원, 우병훈 서기관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이 사건은 2024년 봄, 국민들이 고물가로 인해 고통받던 시기에 시작되었다. 해당 직원들은 설탕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던 중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제당 3사는 약 20년 전(2007년)에도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 입수한 A업체 사업보고서에는 과거 담합 시절 합의했던 시장 점유율이 마치 현재의 점유율인 양 당당히 적혀 있었다. 이를 본 공정위의 베테랑 정문홍 사무관에게 소위 “축”이 왔다.

*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 가격과 생산량, 시장점유율 등을 담합

하지만 조사는 쉽지 않았다. 제당사들은 이미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록, 메신저나 이메일 등 증거 자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모든 일은 은밀한 오프라인 만남과 전화 통화로만 이루어졌다. 현장 조사에서는 "그냥 가격 얘기 좀 한 거예요"라는 정황 증거만 나올 뿐, 결정적인 '합의서'는 없었고 조사는 미궁에 빠졌다. 사건은 그대로 묻힐 수 있었다.

이때, ‘구원투수’가 등장하였다. 바로 오행록 당시 제조카르텔조사과장(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었다. 그는 2007년 설탕 담합을 직접 적발했던 당시 실무자이었기 때문에 설탕 산업의 구조와 담합 형태에 관해 누구보다 전문가였다. 오 과장은 과거의 사건과 비슷한 구조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감하였다. 정문홍 사무관은 오 과장의 지휘 아래 조사 당시 확보된 자료들을 꼼꼼히 재검토하고, 조사 순서, 접근 방식, 압박 포인트 등 조사 전략을 전면 재설계하였다.

시간은 흘렀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던 조사였지만, 담합의 약한 고리에 있는 제당사 직원을 특정하고 집중적으로 진술을 받았다. 그렇게 집중 조사를 받던 직원은 차츰 앞뒤에 맞지 않는 급조한 변명을 하게 되었고, 다른 회사에서 먼저 자백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결국 해당 직원은 더 버티지 못하고 2025년 3월 경 결정적인 자백을 하였고 담합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끈질긴 조사 끝에 제당사들은 자진신고를 하였고, 자진신고 이후 설탕 담합 조사는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올해 3월 3개 제당사(씨제이제일제당(주), (주)삼양사, 대한제당(주))에 3,9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더욱이, 설탕 담합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밀가루와 같은 주요 식품 원자재 분야의 담합 사건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

특히, 공정위가 확보한 자백과 증거자료는 이후 검찰 수사의 핵심적 자료로 이용되었다. 검찰은 공정위의 끈질긴 조사가 이끌어 낸 자진신고를 통해 설탕 담합 사건을 인지하였다. 이후 검찰은 2025년 9월 제당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공정위가 확보한 방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같은 해 11월 기소를 하였다. 이는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의 선제적 조사와 자백 확보가 형사 제재로 이어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문홍 사무관은 정년퇴직을 2년 여 앞둔 베테랑으로, 이 사건을 초기부터 담당하여 자료 검토, 행위자 진술조사,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전원회의 심의 대응까지 사건 전반을 총괄하였다. 퇴직을 앞둔 시점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이고

반복되어 온 식품 분야 담합을 근절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끈질기게 사건을 처리해 후배 직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우병훈 서기관은 진술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전원회의 심의 대응 등을 정문홍 사무관과 분담해 진행하였다.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쟁점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피심인들에 대한 심사관의 조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공정위는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지속된 담합을 끈질기게 추적·제재하여 가격인하*까지 이끌어 낸 점, “기업들이 걱정하고 숨겨도 공정위 조사관은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낸다”는 조사역량을 보여주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정문홍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을 이번 제1회 포상자로 선정하였다.

* 3개사 기준 설탕가격이 26년 1월까지 담합가격 대비 16.5% 인하

그 외 3개 과제에 대해서도 우수과제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붙임] 참조).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은 “경쟁질서를 읽는 공정위 조사관의 역량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집념이 결합된 성과였다. 행정조사권만으로 시작된 사건 조사였지만, 12개월 동안 이어진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거대 카르텔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이끌어 낸 것이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결정적 열쇠가 됐다.”라며 정문홍 사무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문홍 사무관

우병훈 서기관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이현준 (044-200-4262)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공민행 (044-200-4261)

□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총 650만 원)

불공정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민지현 사무관, 이선희 서기관, 김장권 사무관, 김민정 사무관에게 650만 원을 포상하였다.

민지현 사무관은 기업들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법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다.

특히, 법률상 과징금 상한을 해외 법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구조적 개편과, 과징금 고시상 실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운영체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규정 정비 수준을 넘어 공정거래 분야의 경제적 제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대규모 정책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에 수반되는 벌금이 훨씬 크게 하여, 소위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기존의 인식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선희 서기관, 김장권 사무관, 김민정 사무관은 국내·외 과징금 법제 및 판례 분석, 공정위 심결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과징금 상한 및 부과 기준 마련에 기여하였다.

□ 20년간 숨겨온 DB·영원·HDC 계열사 누락행위 적발 (총 600만원)

‘대기업집단 총수의 계열사 누락행위’를 엄중 제재한 음잔디 과장과 황정에 서기관, 김한결·김준희 사무관, 오은성 조사관에게 총 6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이들은 기업집단 「DB」, 「영원」, 「에이치디씨」의 장기간 다수 계열사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검찰고발 및 기소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정위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알렸다. 특히, ‘총수고발’이 지난 정부 1건에서 현 정부 출범 후 4건(’25년 1건, ’26.1분기 3건)까지 늘어 ‘공정위가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자아내기도 했다.

3개 사건은 모두 약 20년간 은폐된 장기 위반행위로서 방대한 자료검토와 새로운 법리 적용 등 난이도가 높았으나, 촘촘한 증거분석을 통해 고발 조치를 관철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분관계 없이 지배력을 입증하거나, 약식 자료 허위제출에 제재를 시도하는 등 위법성 입증이 어렵거나 선례가 없는 사안임에도 적극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장기간의 위법행위를 적발·입증하였다.

이번 조치로 기업이 걱정하고 숨기더라도 결국은 밝혀진다는 경고 메시지가 전파되면서, 기업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자정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올해 5월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계열사 현황자료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면서, 기업집단관리과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

□ 국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거래 점검팀 운영 (총 450만원)

마지막으로, 담합 등 물가를 견인하는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등을 통해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한 장주연 과장, 전용주 서기관, 윤지수 사무관에게 45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발족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및 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통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정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우려 포착 시 신속히 조사가 착수되도록 하는 한편, 민생밀접 품목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수립·이행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중동전쟁 발발 이후에는 석유류,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까지 점검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담합 혐의 등에 조속히 대응하는 데에도 이바지하였다.

이 외에도 세 공적자들은 공정위의 담합 적발 이후 설탕·밀가루·전분당 업체들이 공급가격을 인하하였음을 감안하여, 설탕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전반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빵·라면·제과·아이스크림 등 업계에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였다. 이는 빵 등 4가지 품목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원가인하 요인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한 결과이다.